

전환기에 놓여 있는 태국의 정치적 위기와 왕위계승 전망

최근 수년간 태국은 두 개의 대립적인 진영이 격돌하면서 일련의 정치적 및 사회적 격변을 겪고 있다. 한 쪽엔 군부와 연결되어 있는 방콕의 금융 및 정부 엘리트로, ‘옐로우셔츠’(yellow shirts)로 구현되어 왔다. 다른 한 쪽엔 동북부 지방의 농촌 지역에서 인기가 좋은 친나왓(Shinawatra) 가문 세력으로, ‘레드셔츠’(red shirts)로 대변되어 왔다.

폭력적인 대립의 절정기에 양 진영 간 거리에서의 충돌로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다. 마침내 2014년 5월 군부가 선거를 통해 수립된 정부를 무력 쿠데타를 통해 전복하고 계엄령을 발표했다. 그 이후 정권은 군부의 손에 놓여 있다.

이처럼 양분된 나라에서 만87세의 푸미폰 아둔야뎃(Bhumibol Adulyadej) 왕은 모든 태국인들을 다시 하나로 결집시키는 유일한 구심점이다. 왕위에 60년째 있으면서 세계에서 최장기 재위의 기록을 세우고 있는 푸미폰 왕은 신적인 존재로 존경받으며 국가적 통일의 유일한 요인이 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늙었고 아프다. 이 나라에서 터부로 되어 있는 왕위계승의 이슈는 나라를 새로운 그리고 더 심각한 대립으로 몰아갈 수 있다.

국왕의 존재를 보호하기 위한 태국의 국왕모독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국왕모독법 중 하나이다. 최고 1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군부가 최근 사회적 불만을 억압하고 나라를 철권으로 통치하기 위해 이 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태국의 향후 상황 전개와 그것의 정치적 맥락 그리고 여러 세력들 간 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주제의 미래와 왕위계승 절차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태국에서는 국왕의 존재와 탁신 친나왓 가문 그리고 레드셔츠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터부로 되어 있다.



군부와 방콕의 기성 특권층 그리고 상류 부르주아는 국왕 뒤에 숨어 군주제를 이용하여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최근 비판되어 왔다. 특히 군부는 막후에서 일을 꾸며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왕에 대한 영터리 충성심으로 국왕의 존재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 받아 왔다.

방콕의 한 외교 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 태국에서 가장 알력을 일으키는 이슈는 권력의 합법화를 위한 투쟁으로, 그것은 푸미폰 왕의 그늘 밑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싸움에서 선두를 달리는 자들은 군부의 최고위 장성들과 유력 가문들과 경제를 움직이는 세력들이다.” 그리고 국왕에 대해서는 “지난 60년 간 그가 국가적 통합의 상징이었고 헌법의 보장이었고 종교의 수호자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반정부 투쟁을 하는 남부 태국의 무슬림들조차 그를 존경하며 그를 진정한 태국의 정신이라고 본다. 연극이나

영화 시작 전 사람들은 기립하여 국왕을 찬양하며 태국의 국가가 울려 퍼질 때 경청한다. 최근 한 남자가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처벌된 적이 있었다”고 말한다.

비록 그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스위스에서 교육받았으며, 대부분의 태국인들과 달리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고 서양음식을 선호하지만, 푸미폰 왕은 어쨌든 나라의 정신을 구현화하고 있다.

태국에서 군주제는 하나의 제도로서 계속될 것이고 아마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교 소식통에 의하면, 그가 죽으면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이며, 특히 만약 와치라롱콘(Vajiralongkorn) 왕세자가 새로운 국왕이 되면 그는 푸미폰 왕의 것과 같은 도덕성과 정치적 무게를 갖지 않을 것이다. 그가 부친의 카리스마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태국인들 중에는 그에 대한 어떤 수준의 불만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 푸미폰 왕은 어떠한 스캔들에 휩싸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왕세자의 이미지는 향간에 떠도는 각종 소문으로 더러워져 있다. 최근의 스캔들은 그가 세 번째 부인과 이혼한 것이다.

그에 반해 사람들은 그의 여동생인 마하짜끄리 시린톤(Maha Chakri Sirindhorn)공주를 좋아한다. 흔히 ‘천사 공주’를 뜻하는 ‘프라 텡’(Phra Thep) 칭호로 불리는 시린톤 공주는 부왕과 마찬가지로 인기가 좋다. 그녀는 일반 국민에 대해 신경을 쓰고, 사회적·시민적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교소식통에 의하면 보통의 태국인들은 여왕을 훨씬 선호한다. 그러나 왕자는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



태국은 어쨌든 그 역사에서 한 중대한 순간을 위해 점차 준비하고 있다. 그 순간이 오면 그동안 군부 정권이 은폐해 온 긴장과 갈등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교소식통은 “고려할 수 있는 한 가지 해결책은 일정 기간 한 전문가를 정부의 수반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권력이 민간인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 전문가는 주류 정치무대의 외부에서 영입되어야 하며, 옐로우도 레드도 아니고 어떠한 경제적 및 사회적 이슈에 얽혀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AsiaNews, 2015/3/11]